



폭우 토사유실 도로 통제 28일 오전 광주 북구 각화동 문흥IC 입구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왼쪽). 이날 동구 조선대입구 사거리 도로에 많은 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폭우 토사유실 도로 통제 28일 오전 광주 북구 각화동 문흥IC 입구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왼쪽). 이날 동구 조선대입구 사거리 도로에 많은 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광주·전남 ‘한 발 느린’ 기상청 예보 시민들 ‘원성’

27일 오후 7시까지 ‘가끔비’...비 내리고 나서야 ‘호우주의보’ 도로 침수, 건물에 갇히기도...기상청 “정체전선 예측 어려움”

“오후에 날씨 예보를 보고 저녁모임에 왔는데, 폭우가 내려 가게에 갇혔네요. 비가 온 뒤에 예보하면 그제 중계지 예보해요.”
지난 27일 오후부터 광주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기상청의 ‘한 발 느린 예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상청이 당일 오후 7시40분까지 광주의 강수 상황을 ‘가끔 비’로 예보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비특보 없는 호우특보를 발효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 “28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40분과 7시40분에 발표한 기상정보에도 “28일 오전 6~9시 광주와 전남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
그러다 7시40분 기상정보 이후 1시간 만인 오후 8시30분 기상청은 예비특보도 없이 광주·담양·장성·함평·영광에 ‘호우특보’를 발효했다.
이후 기상청은 오후 8시40분 기상정보를 통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안내했다.
기상 예보가 불과 1시간 만에 ‘가끔’에서 ‘매우 강한’으로 바뀐 셈이다.
이렇듯 갑작스럽게 바뀐 예보에 지난 밤 크고 작은 불편부터 침수 피해까지 겪은 시민들은 기상청의 ‘한 발 느린’ 예보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광주 동구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서모(34)씨는 “식당의 마감시간이 다가와 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가 잠긴 탓에 택시가 전혀 다니지 않아 비를 쫓막 맞은 채로 가장 가까운 친구 집에서 지어만 했다”며 “호우

예보를 조금만 빨리 해줬으면 일찍 집에 들어갔을 텐데 아쉽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일기예보 기사에도 ‘원망과 한탄’이 섞인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지난 27일 오후10시19분께 한 날씨기사에 댓글을 쓴 A씨는 “기상청 날씨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우산도 없이 모임에 갔다가 갑작스런 폭우에 집에도 못가고 있다”며 “날씨를 실시간으로만 예보하냐”고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 B씨도 “비가 온 뒤에 예보는 게 중계지 예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 상의 비구름대는 생성됐다 사라지는 경우가 잦아 세밀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며 “때문에 전날 예비특보 대신 곧바로 대비할 수 있는 호우특보를 발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총복 오창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상 예보 프로그램을 돌려 자료를 받고 가공한 뒤 날씨 해설과 기상정보를 전달하는데, 국내외 더불어 해외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돌려 나온 자료의 신뢰도는 약 87~88%로 기상 예보관들의 가공을 거치면 실제 신뢰도는 9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오복·안재영기자

‘14일째 파업’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새국면 맞나

시립제2요양병원 등 참여 전국 단위 총파업 예고 빚고을의료재단 “현 상황 타개할 해법 모색” 밝혀

단체협약 승계 문제로 14일째 파업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에 시립제2요양병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 본부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달 12일까지 쟁의조정기간 동안 7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7대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대 환자비율 15조

정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중단과 공익적자 및 회복자 지원 확대 ▲9·2노정합의 이행 ▲노동계약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다.
보건의료노조의 이같은 행보는 각각의 의료현장 사정이 앞서 파업 중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과 마찬가지로 열악하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노조는 전날 각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에는 광주시립제1·2요양·정신병원을 포함한 광주·전남 15개 지부 등 전국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동참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총파업 예고에 지난달 15일부터 14일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와 빚고을의료재단 간의 다툼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조의 기자회견에 앞서 빚고을의료재단은 “현 상황을 타개할 장기·중기·단기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직면한 노조와의 갈등을 풀 단기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 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빚고을의료재단 관계자는 “병원을 위탁운영하며 단 한번도 영리를 추구하려 했던 적은 없었다”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에 관심을 보이면 얼마든지 양도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 마을버스 “내달 24일 운행 중단”

재정 문제를 겪어온 광주의 마을버스 업체들이 다음 달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28일 광주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따르면 광주 마을버스 12개 노선 85대를 운행 중인 5개 업체가 다음 달 24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담당 구청에 운행 중단 결정에 따른 휴차를 신청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해 5개 업체 전체의 운영 손실이 최소 20억원, 많게는 3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조합은 운영 손실의 절반을 광주시가 지원하기로 약속하고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마을버스 조합 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의 실무진이 검토해서 산출한 운영 적자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해줘야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50대 징역형

유튜브 채널 방송과 댓글을 통해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하고, 동성애를 옹호한 목사를 모욕한 50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51)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세월호 유족 2명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서 명예훼손하고, 다른 유튜브 채널 댓글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목사를 모욕하는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세월호 유족 1인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다른 세월호 유족과 목사를 상대로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행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복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REAM

DRREA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